



濠洲 정유산업 현황

濠洲가 原油輸入 증대와 석유제품수출 확대를 통하여 국제석유시장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시장에서 濠洲정유산업의 부상은 국제원유 및 제품공급자와 트레이더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유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국내원유생산은 감소하고 있어 원유수입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호주는 현재 中東산유국에 편중된 原油輸入先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으로 다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濠洲 석유제품과 LPG의 수출량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원유수출량을 증가하고 있다. 수출대상국도 기존의 南태평양群島에서 필리핀과 태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제품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싱가포르 정유업자와 트레이더들을 비롯 美國(걸프灣 정유업자) 및 OPEC에 교역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濠洲의 원유수입은 2000년에 이르러 현재(1988)의

16.5만b/d에서 55만b/d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유 自給度는 1988년 85%에서 2000년 28%로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유수입 확대 전망의 배경에는 1) 국내 원유생산량 감소, 2) 규제철폐(輸入 等價 平均價格決定 및 원유공급 配定方式의 폐지; 1988년 1월 1일)에 따른 다양한 공급원 선택(원유공급비용 절감), 3) 견실한 內需增大에 따른 정제산업의 확대와 시설고도화 실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濠洲의 원유생산량은 지난해 518천b/d로 전년대비 8% 감소하였다. 이는 호주 최대 海洋油田인 Gippsland Basin (Bass Strait)의 생산량 감소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생산전망도 1993년 30만배럴로 縮小·調整되었다.

濠洲産 원유의 국내 정유공장 투입비율은 1986년 82%에서 1988년 68%로 14%포인트나 하락하였다. 부족한 원유는 인도네시아를 위시하여 사우디, UAE, 말레

濠洲 정유산업 시설현대화 계획

	계	획	투	자	액	비	고
Shell	• 重質溜分	축매분해시설(Geelong정유공장 현대화)	A	\$	650	백만	
BP	• Clyde	정유공장 확장	A	\$	150	백만	
(Kwinana)	• Bulwer Island	(Queensland)					
Mobil, Exxon	- 시설현대화, 중질유분 분해시설, 유황 회수공장 건설						합작사업
	• Altona (Victoria주), Port Stanvac (Adeleide) 축매분해 시설투자		A	\$	30	백만	- Mobil (67%)
Caltex	• 나프타 異性化 공장 (Adeleide)		A	\$	57	백만	- Exxon (35%)
	• Kurnell정유공장(시드니) 시설투자						
	Australian Lubricating Oil정유공장						

이지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濠洲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産 원유의 수입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물량부족으로 제약받고 있다. 이미 수입의존도가 70%를 넘어서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늘이는 한편 新規供給先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호주에 진출해 있는 Shell, BP, Mobil, Exxon, Caltex 등 메이저의 전세계적 垂直·水平 總合組織도 공급선 추가확보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濠洲정유산업은 1980년대초 합리화 과정(市場脫退 3社, 廢業 2社)을 거쳤다. 합리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6개 정유사는 시설현대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표 참조). 그 결과 시설이용률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제능력은 699.5b/d(최대 가동능력 85~88%, 최대 생산능력 758.5천b/d)이며, 작년의 제품생산고는 전년대비 13.5% 증가한 596.7천b/d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정유제품과 LPG수출은 각각 75.9천b/d, 41.4천 b/d를 기록, 원유수출량 110

천b/d를 능가한다. 정유제품의 최대수입국은 싱가포르이고 기타 수입국으로는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일본 등이 있다. LPG수출의 대부분(84%)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濠洲의 석유교역 증대가 아시아·태평양 석유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濠洲의 원유수입 急增은 OPEC원유의 신규수요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육상 및 해양 유전탐사·개발활동의 倍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産油量 감소는 불가피하고, 또한 東南亞 地域 産油量도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둘째, 인접한 싱가포르 정유지와외의 제품시장 확보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석유수요 증대로 싱가포르 정유능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일본의 遊休 精製施設 활용방안이 제의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과의 競争·補完 관계속에서 호주는 정제시설확대와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 동향>

□ 마음의 양식 □

좋은 독서를 위한 세계 명언

- 방에 책이 없는 것은 몸에 정신이 없는 것과 같다...(키케로)
- 순수한 책은 증류수와 같이 항상 빛이 난다...(베이컨)
- 사람은 독서함으로써 고인과 때를 같이할 수 있다...(한국속담)
- 목적 없는 독서는 방황이지 연습이 아니다...(릿튼)
- 글을 읽고 의혹(疑惑)을 가지고 또는 경모(輕侮)의 생각을 품는 사람은 무쌍의 지자(智者)이다...(처칠)
- 읽어라, 그러면 너를 알 것이다...(미세스제임스)
- 글에 깊어지면 그 자신은 알아진다...(밀튼)
- 서적은 네가지 목적의 하나를 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지식, 신앙, 쾌락, 편익이다...(루소)
- 인간 만사에 가장 긴요하고 진기하고 중요한 것은 서적이다...(카알라일)
- 서적은 인생의 행복의 대부분을 점령한다...(프레데리크)
- 유쾌하게 읽을 수 없는 책은 아무리 읽어도 소득이 없는 것이다...(영국속담)
- 일백번 읽으면 뜻이 스스로 통할 것이다...(맹자)
- 사람은 먹어서 주름은 고칠 줄 알면서 배워서 어리석음을 고칠 줄은 모른다...(설원)
- 책은 반드시 벗을 택하는 것과 같이 수를 적게 정선하라...(사무엘 존슨)
- 인도의 전 보물을 준다해도 독서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바꿀 수 없다...(김بن)
- 좋은 책은 군자의 귀중한 생명으로서 자자손손을 위하여 향료를 풍겨서 비장할 것이다...(공자)